

불교 자주, 정체성부터 되찾자

성철스님문도회,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 학술포럼

우리 시대를 함께 비추던 선지식,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한국 문화의 비전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천제)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 '현대 한국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상'을,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를 발표했다.

성철스님문도회 대표 천제 스님은 환영사에서 "오늘 행사는 승가의 사회적인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승가상은 무엇인지, 또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 불교의 자주성과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스님께서 주도하신 봉암사 결사의 정신과 종단의 어른으로서 대응하신 방법 등을 바탕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성철 스님은 바른 깨달음이 무엇이고 이 시대의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불교계의 어른이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부를 포함한 외부 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 불교의 자주성은 무엇인지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원웅 지성 양성하자

김희옥 총장은 기초강연에서 "성철 스님의 지혜와 자비가 조화된 '글로벌 원웅 지성'과 '상호 존중' '상호의존'의 연기사상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김희옥 총장

조성택 교수

성태용 교수

김희옥 총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불교교육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총장은 불교교육을 불교를 교육하는 것과 불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나뉜다. 불교를 교육하는 것은 불교 전문 인재 육성을, 불교적 교육은 불교정신을 갖고 불교적 인간상에 부합하는 사회의 일반 인재 육성을 뜻한다.

김희옥 총장은 불교교육의 지표로 △지혜와 자비 △희망과 도전 △생명(생태)와 평화 △정의와 실천을 꼽고, 종립 동국대에서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서비스업 아니다

조성택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는 일반한 성철 스님을 현대한국사회로 다시 불러내야 할 만큼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서구 불교가 흥하는 현실에서 한국 불교만 위기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의 위기 타결을 위해

출가자부터 출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서비스업이 아니다. 사회사업, 대학교·방송국 운영 등 개신교 등이 아웃종교의 사회참여 방식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는 개신교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비판 실천가로서 불교의 역할을, 중생을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택 교수는 "출가자들이 문명비판의 실천가로서 중생을 위한 교사가 될 때 한국 불교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불교 본래의 간단한 실천마저 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주성 이전에 정체성부터 찾아야

성태용 교수는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고찰했다.

성 교수는 "현실의 불교는 그냥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모습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며 호국불교·회통불교를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대 한국불교는 출가와 대처, 출가와 재가 문제 등으로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성태용 교수의 진단이다.

성 교수는 "회통불교의 전통은 다양성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그 다양성들을 꿰뚫는 통찰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국불교 정신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와 그에 대응하는 불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 정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호국불교 정신이 왜곡돼 상당기간 대통령의 강령을 지원하는 형태의 의식으로 남아 있었고,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는 양상까지 빚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불교계가 자주성을 상실하고 정치권력에 종속된 모습을 보여온 것들은 근본적으로 불교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고, 정치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철스님문도회는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3년간 12번의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삶 등을, 2012년에는 '퇴옹성철과 돈오돈수'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인 돈오돈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 성철 스님 열반 제20주기인 2013년에는 '퇴옹성철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현대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철 스님을 살펴보고 불교의 미래를 논할 예정이다.

조동섭·천진영 기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절박한 현실에서 발견한 선(禪)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②

구한말부터 국권상실기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의 승려들에게 미묘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50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억불(抑佛)의 굴레에서 벗어날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대에, 경허는 불교계의 지식인이기는 했으나 조선의 선도그룹일 수는 없었다. 그만큼 조선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란 미미한 것이었다. 아직도 희망을 발견하기란 조선의 승려에게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95년 조선 왕조 내내 유지됐던 승려들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경허 스님은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도성이 아니라 남해를 택했다.

"나의 서원은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吾有誓願 足不踏京城之地.)"

물론 경성 땅을 밟은 승려 모두가 사노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경성 땅을 밟은 승려 모두가 시류에 영합한 것은 아니다. 의발을 전할 승려도, 의발을 전해 받을 승려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가 바로 경허. 의발(衣鉢), 곧 불교의 정신이란 생사교해의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중생을 해방하는 것이 아닐까. 의발은 실천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전해지고 전해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도성의 출입이 어떤 승려에게는 조선불교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경허에게는 아니었다. 조선불교의 생사는 도성 출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정신이 살아서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의 발걸음은 삼남지방을 두루 거쳤다. 산산곡곡의 제방을 놓치지 않았다. 거기에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질곡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외면했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론 시대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류에 영합할 수도 그렇다고 시류

에 맞서는 방법도 역시 온당히 수긍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표현은, 경허 스님의 경우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원래 사회의 주류도 아니었던 자가 모처럼만에 주어진 중앙 진출의 기회를 내치듯 던져버리고, 지방으로 편력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종(禪宗)은 도성(都城)의 불교가 아니었다. 8세기 중국 전역을 요원의 불길처럼 휩쓸었던 선종의 기세는 도성이 아니라 지방 각지에 흩어졌던 선승들의 민중과 어우러진 삶 속에서 축적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

초기 남종선 선사들의 행로를 그대로 밟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가야산에 머물렀던 때에 지은 "왕자 수도록하나 정지 잘해 민생을 해결하겠지/ 나는 이제부터 한 벌 누더기 거들 거들 기워 입으며/ 구름에 잠긴 산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늙으리라"는 시구를 소개하면서 김지전 선생은 '눈물겨운 역설'이라는 해석을 곁들여 고았다.

나라가 망해가던 때에, 외진 산 속에서 왕자가 많아서 민생정치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억지로 차부하고 있는 자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나. 적어도 산중에 은거한 자의 안락가는 아니었다. 조선불교의 생사는 도성 출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정신이 살아서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의 발걸음은 삼남지방을 두루 거쳤다. 산산곡곡의 제방을 놓치지 않았다. 거기에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질곡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외면했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론 시대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류에 영합할 수도 그렇다고 시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사찰계가 승속 화합 이끌었다

한상길 교수, 불광사 학술연찬회서 주장

"사찰계(寺刹契)는 불교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승려와 대중의 참여로 승유역불이라는 여건 속에서 불교를 유지·발전시키는 신앙적 결합이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

원 교수(사진)는 불광사(이 사장 지흥)이 주최한 '불사, 대중의 원력과 참여의 결정체'를 주제로 불사의 교학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학술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상길 교수는 사찰계를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수행과 신앙심을 증진시키거나 사찰 재산, 전각, 혹은 의식용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모든 조직체라고 정의했다.

천진영 기자

고상현, 선리연구원 학술상

제5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 수상자로 조계종 교육원 고상현 연구원(사진)이 선정됐다. 학술상은 김중수 박사, 남궁선 박사, 권경임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21일 제5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논문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상현 연구원은 주제논문



'고려시대 수록대 연구'를 통해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에게 공양(供養)을 베푸는 수록대 의식이 고려시대에 어떤 목적과 유형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분석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회장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태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뱀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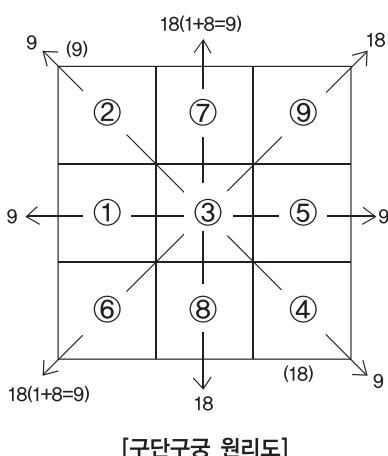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사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종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온 종사영만 점안의식 ·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수요일 :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절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요결	풍수 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태일 · 실천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궁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금,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